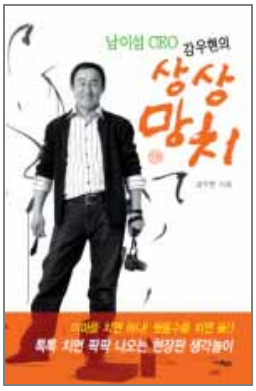
Thursday Leadership 2009-12-03 no.524

그 곳에선 상상이 현실이 된다



상상망치
강우현 | 나미북스

남이섬 대표, 강우현을 만나다

『상상망치』는 디자인회사 알씨컨텐츠, 남이섬 대표인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강우현 씨가 쓴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의 장르는 디자인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필도 아니며, 경제경영 분야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저자가 남이섬을 성공적으로 만든 CEO 여서 그런 것 같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운 성공신화가 어느 때부터인가 경제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적 경영이 화두인 까닭이다.

상상경영, 역발상경영이라는 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우현 대표. 일정이 너무 바쁜 탓에 특강 강사로 초청하기가 무척 힘든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바로 강우현 (주) 남이섬 대표이다. 어렵사리 섭외에 성공하여 필자가 맡고 있는 숙명여대의 오픈클래스 강좌에 모셨다. 오픈클래스는 대학의 강의를 일반인도 들을 수 있게 만든 대학의 지식나누기 프로그램인 OCW(Open Course Ware)강좌이다.

강우현 대표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교환했다. 그의 명함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로된 것이 아니라 세로로 길게 인쇄되어 있었다. 윗부분은 남이섬에서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길이 파스텔 톤의 연한 녹색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하늘로 치솟은 나무 하나 크기만큼 세로로 인터넷주소가 씌어 있었다. 그 아래엔 나미나라 공화국(NAMINARA REPUBLIC)의 마크가 있다. 여기에서 나미나라 공화국의 영어표기는 "The Republic of Naminara"가 어법적으로 맞는 것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 남이섬에서는 그가 만든 모든 것이 바로 법이고 시행원칙이 된다. 그의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되는 곳이 바로 남이섬이기 때문이다.

그의 명함에 있는 직함은 주식회사 남이섬의 '대표이사/그림동화작가'라고 되어 있다. 그에게는 그림동화작가라는 직책이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다. 그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상상망치』의 앞 표지를 넘겨 그에게 건넸더니, 그는 다시 거꾸로 놓는다. 그러더니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림이 아니라 책에서 읽었던 '강우현식 꺼굴체'로 쓰는 중이었다. 거꾸로 글씨를 다 써 놓고 보니, "황영미 교수님께"라는 글씨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무슨 동물을 좋아하냐고 물으신다. 어릴 적 별명이기도 해서 인터넷 닉네임으로도 자주 쓰는 '토끼'라고 말씀드렸더니, 나비 넥타이를 하고 뛰어오르는 토끼 캐릭터 아래에 세로로 '우현'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 옆에 귀여운 토끼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금방 나타난다. 일초의 망설임 없이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그에게는 이런 사인을 하는 방식이 익숙해 보였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표현 방식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한 사람이 이제는 정말 자유자재로 그 표현방식이 구사되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상을 깨뜨려 현실 속에 펼쳐놓다

그가 쓴 책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야말로 그림동화집도 있고, 『포인트스토리』라는 먹물 에세이도 있다. 먹물로 그린 점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킨 그림들과 그에 관한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 속에 담아낸 책이다. 그 외에도 『나는 남이섬에서 산다』등이 있다. 그 동안 출간되었던 그의 책보다 『상상망치』는 남이섬에 그가 꾸려놓은 작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어떤 생각에서 그가 남이섬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풀어놓고 있다.

저자 강우현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상상망치'를 가지고 있을까? 물론 그에게는 상상망치 정도는 우스울 것이다. 그의 상상력은 망치 정도가 아닌 것 같다. 마치 탱크나 트럭 같다. 없던 길도 그가 지나가면 길이 되고, 웬만한 방해물은 그 위력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탱크, 어떤 무거운 물건이라도 척척 올리면 바로 운반하는 트럭과 같은 느낌이다. 실행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상상은 꿈이나 이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상상은 바로 현실에 있다.

"상상을 이루면 이상, 꿈꾸다 말면 몽상이다. 이루고 싶은 의지들이 모여 이상이 되나 보다"(218 쪽)라고 본문에도 씌어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며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상상을 현실에서 이루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저자가 이렇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비결은 책을 열면 바로 알게 된다. 그 비결은 간단하게 말하면 초년고생이다.

책의 서두에 있는 '강우현의 상상놀이 연표'라는 장에서는 그의 가정환경은 어땠으며, 그림을 좋아했던 어린시절과 상고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이 씌어져 있다. 남들이 유명 입시학원에서 레슨을 받으며 대학 입시 준비할 때,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레슨을 하는 화실을 열어 돈을 벌어가며 그림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온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온실을 돌보며 지냈다고 한다. 그 덕에 남이섬에 나무를 심고 남이섬을 가꿀 수 있는 성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어린 시절 빨리 깨달은 덕에 궁하면 통한다는 의지력이 생긴 것이다. 어려웠던 여건이 오늘날 강우현이라는 거목을 만든 거름이 된 것이다.

나미나라의 기분좋은 상상 이야기

대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이 책을 읽고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저자 강우현은 요즘 자신의 상상력이 두려워지지는 않을까? 상상만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나미나라 대통령 강우현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기 때문이다.

남이섬은 이미 한국의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상상망치』에는 저자가 남이섬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에 옮겼는가가 그대로 써 있다. 진도의 군수가 방문을 하면 진도와 섬섬언약을 맺어서 섬끼리 상생을 도모하며, 단양 군청에서 사람이 오면 단양의 도담삼봉을 하나 만들어서 또 상생을 도모한다. 남이섬의 콘텐츠 늘어나서 좋고, 진짜 도담삼봉을 보러 단양을 가고 싶게 만들어서 좋다는 것이다.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활용하는 상상의 실현, 생각만 해도 기분좋은 상상이다. 나미나라 공화국은 역발상경영, 상상경영, 창조경영, 디자인경영이라고 말로 붙여서도 모자라는 무언가가 있다. 나미나라 공화국은 국기도 있고, 글자도 있다. 국민증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도 세계적으로 도처에 갈려 있다고 한다.

저자 강우현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을까? 나미나라 공화국은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할까. **『상상망치』** 속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성공신화와 다른 뭔가가 있다. 강우현은 유원지가 아닌 문화콘텐츠를 지닌 남이섬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한다. 쓰레기도 자원으로 만드는 아끼는 정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섬김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상망치』**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알고 싶은 보물상자와도 같다.

황영미 (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교수)